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고조선 연구와 문제점*

조 원 진**

목 차

국문초록

- I. 서론
- II. 단군 연구 내용과 분석
- III. 기자 연구 내용과 분석

IV. 고조선 계통 및 영역 연구와 문제점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국문초록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한국사 연구는 한국고대사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마니시는 檀君과 箕子 등 고조선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의 연구는 후대 일본학계의 고조선 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마니시가 단군을 부정하며 ‘王儉’이 평양의 옛지명인 ‘王險’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거나 단군을 해모수라고 본 것은 큰 오류가 있다. 『三國遺事』의 사례처럼 본래 고조선의 도읍 명칭은 檀君王儉과 관련된 王儉城이 맞는 표기로 보인다. 또한 단군은 해모수와 동일인이 아니다. 이마니시는 단군 전승에서 불교적 요소가 적으며 구조를 보면 字句 상에 도교적 요소가 많다고 했으나 그가 언급한 도교적 요소는 단군 전승의 원형이 아니라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마니시가 기자 동래를 부정한 것은 한국학계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마니시는 기자 동래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환의 『魏略』은 樂浪 韓氏의 僞系

* 이 논문은 홍익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譜에 근거한 기록으로 보고 『魏略』의 사료적 가치도 불신하였다. 그러나 일부 윤색된 부분이 있더라도 『魏略』의 사료적 가치와 『魏略』에 나오는 고조선 왕들의 역사성까지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마니시는 기원전 3세기 이전 고조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자가 와서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조선과 이후의 위만조선은 성격이나 강역이 다르다고 보았다. 즉 전자는 한강(옛 대수) 유역을 중심으로 한 韓種族의 나라이고 후자는 대동강(열수)를 중심으로 한 중국민족(支那民族)의 나라라고 본 것이다. 또한 진번을 충청도와 전라북도로, 진국을 경상도로 각각 비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조선의 주민 구성과 진번·진국의 위치 비정은 오늘날 근거를 상실한 견해이다.

고조선의 존속기간과 영역을 축소하고 한사군의 위치를 최대한 한반도 남쪽으로 비정하려 했던 이마니시의 주장은 문헌·고고학 자료를 통해 볼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이마니시류, 단군, 기자, 고조선, 단군조선, 왕검조선, 기자조선

I. 서론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일본인 최초로 한국사를 전공한 학자로 식민주의 역사학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국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된다. 그는 총독부에서 조선 강점 이후 전개한 각종 조사·연구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1922년 일본에서 최초로 조선사를 주제로 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였다.¹⁾ 이마니시의 한국사 연구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다양한 시대에 걸쳤는데 특히 신라사와 백제사는 단행본으로 따로 발간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것은 그가 한반도 남부의 韓種族만을 오늘날 조선민족과 연관된다고 보았던 사실과도 관련된다.

하지만 이마니시는 고조선과 관련된 연구도 적지 않게 발표하였다. 특히 이마니시는 일본학자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의 단군 연구를 발표하였다. 또한 그의 箕子 연구 역시 일본 학자 중에서 기자 문제를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의 연구는 단군의 역사적 실체와 기자 동래를 부정하며

1) 정상우, 2022, 『만선사, 그 형성과 지속』, 사회평론아카데미, 105쪽.

고조선 시기의 역사를 공백으로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시라토리의 연구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이마니시는 기원전 3세기 한반도 북부에는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조선이 있었고 남부에는 진번·진국·임둔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기원전 3세기 이전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마니시의 연구에 대해서는 근대시기 최남선의 비판이 있었으며²⁾ 최근에 그의 단군 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이루어졌다.³⁾ 그럼에도 이마니시의 고조선 관련 연구 중 주로 단군에 대한 연구만 검토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⁴⁾ 이마니시는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와 『朝鮮史』 편찬사업에 참여하여 『朝鮮半島史』의 1~3편과 『朝鮮史』의 1~2편(신라통일 이전, 통일 이후의 신라) 집필을 맡았다. 여기에서 고조선사는 서술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이마니시의 고조선사 인식은 일본의 한국사 왜곡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이마니시는 기자조선에 대해서도 자세한 연구를 발표했고 고조선의 주민이나 영역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이마니시의 이러한 연구는 고조선의 역사와 독자성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의 관련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마니시의 한국고대사 연구 중에서도 고조선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마니시는 1910년대 「檀君の傳説につきて」와 「大同江南の古墳と樂浪王氏との關係」를 통해 간략하지만 단군과 낙랑 왕씨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마니시는 1920년대에 단군과 기자에 대해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발표한다. 1922년에는 「箕子朝鮮傳説考」를 발표하여 기자조선은 중국사서가 날조한 전설이라고 보고 『魏略』의 관련 기록은 樂浪 韓氏의 僞系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마니시의 기자 연구는 기자조선을 인정하는 중국학자에 의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⁵⁾ 이어서 1929년 방대한 분량의 논문인 「檀君考」를 통해 단군의 역사성을 부인

2) 최남선은 단군 부정론을 유형별로 분류하면서 나가 미치요(那珂通世)와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僧徒妄談說로, 이마니시의 견해는 王險城神說로 분류했다(최남선, 1973, 『六堂 崔南善 全集』 2(韓國史2 檀君・古朝鮮 其他), 玄岩社; 최남선(전성곤·허용호 역), 2013, 『단군론』, 경인문화사, 17~27쪽). 최남선은 이것이 단군 부정론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들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는데 특히 이마니시의 王險城神說을 논핵하기 위해 왕검을 지명과 인명으로 구분하였다(이영화, 2003,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136~142쪽).

3) 이근우, 2021,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4) 한편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식민주의 역사학' 연구팀에서는 일제의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2015년에는 이마니시를 비롯한 주요 식민주의 역사학 연구자 개개인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정준영, 2017,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역사』 115, 163~196쪽(2018, 『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2)』(윤해동·장신 엮음), 소명출판, 283~326쪽).

5) 李健才, 2001, 「評〈箕子朝鮮傳説考〉」 『東北史地考略』 第三集, 吉林文史出版社, 1~16쪽.

한다. 그리고 이마니시는 「眞番郡考」, 「百衲本史記の朝鮮傳について」, 「洌水考」, 「朝鮮史概説」 등을 통해 고조선의 주민·영역과 관련된 문제도 다루었다.

이마니시의 고조선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되었다.

- 今西龍, 1910, 「檀君の傳説につきて」 『歴史地理 朝鮮號』, 日本歴史地理學會.
 今西龍, 1910, 「朝鮮平壤郡大同江南の古墳」 『人類學雜誌』 25-8.
 今西龍, 1912, 「大同江南の古墳と樂浪王氏との關係」 『東洋學報』 2-1.
 今西龍, 1916, 「眞番郡考」 『史林』 1・1.
 今西龍, 1921, 「百衲本史記の朝鮮傳について」 『藝文』 12-3.
 今西龍, 1922, 「箕子朝鮮傳説考」 『支那學』 2卷 10・11號.
 今西龍, 1929, 「檀君考」 『青邱說叢』 卷1.
 今西龍, 1929, 「洌水考」 『朝鮮支那文化の研究』, 京城帝國大學.
 今西龍, 1935, 「朝鮮史概説」 『朝鮮史の栞』, 近澤書店.

본고에서는 이들 연구를 중심으로 이마니시의 고조선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그의 연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다.

II. 단군 연구 내용과 분석

1. 이마니시의 단군 연구 내용

이마니시 류는 「檀君の傳説につきて」⁶⁾를 통해 단군을 주제로 첫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은 그가 한국고대사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발표한 논문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 그는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와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단군전설이 불교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하고 스사노오와 단군이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동일한 신이라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마니시는 단군을 부정하며 고구려시대 평양의 옛 지명으로 전해지는 王險이 고려시대 ‘仙人王儉’의 인명이 되고 고려후기 ‘檀君’이라는 존호를 얻었다고 주장하였

6) 今西龍, 1910, 「檀君の傳説につきて」 『歴史地理 朝鮮號』, 日本歴史地理學會, 223~230쪽.

다. 그는 단군 전승이 고구려시대에 나왔다고 본 시라토리의 견해와는 달리 단군 전승이 고려시대에 나왔다고 보았다. 그가 1910년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함께 『歷史地理 朝鮮號』에 단군에 대한 짧은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당시 유행하던 “일한상대동역설”, “일한동민족설”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⁷⁾

이후 이마니시는 그의 단군 연구를 확장하여 1929년 장문의 「檀君考」⁸⁾를 발표하는데 그의 단군 연구는 「檀君考」에 집약되어 있다. 「檀君考」 서언에 의하면 초고는 1920년에 작성하였으며 이를 수정·증보하였다고 한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魏書』에 단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마니시는 『三國遺事』에서 일연의 오류를 지적하며 인용한 사서 중에서 원 사서에는 없는 경우를 근거로 들었다. 예를 들어 「二府」조에서 『漢書』를 인용했지만 그 부분은 『漢書』에 없으며 「七十二國」조에서 『後漢書』를 인용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밖에 『通典』에서 인용했는데 『通典』에는 해당 기사가 없는 경우가 있는 등 『三國遺事』에는 중국 역사서에 인용한 기사 중 실제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魏書』는 북송 이후 망실되어 29권만 불완전하게 남아 이를 보완하고 빠진 곳을 채워넣었지만 卷100 고구려, 백제 등 열전, 卷114 석로지 등은 완전한데 여기에는 단군 기사가 없다. 이마니시는 설사 이 부분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 관해 기록한 중국의 역사서 중에서 그 흔적이라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둘째 왕검선인은 옛날부터 옛 평양을 수호하는 神人으로 그 지역에 전해졌다고 본다. 주몽의 아버지로 전하기도 하고 부루의 아버지라고도 전해는 것으로 볼 때 단군왕검 선인의 본체는 해모수라고 주장한다. 즉 왕검은 신선의 호칭이고 해모수는 왕검선인의 본명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三國遺事』 「王曆」의 “朱蒙一作鄒蒙檀君之子”라는 구절을 언급하고 기이편 고구려조의 『檀君記』를 인용한 註는 일연이 쓴 것이 아니라 뒷사람이 보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檀君記』에서는 단군과 西河 河伯女 사이에서 夫妻가 태어났다고 했으며, 『三國史記』에서는 解慕漱와 하백녀 柳花와의 사이에서 朱蒙이 태어났다고 했다. 이는 부루와 주몽이 異父同母의 형제가 되는 것인데 부루의 어머니인 서하 하백녀와 주몽의 어머니인 하백녀 유화는 다른 사람이다. 따라서 『三國遺事』의 註는 해모수와 단군을 동일인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한다.

7) 정상우, 2022, 앞의 책, 106~114쪽.

8) 今西龍, 1929, 「檀君考」 『靑邱說叢』 卷1(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130쪽; 김희선 번역, 2009, 「단군고」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49~119쪽).

셋째 단군전설은 고구려 옛 땅을 그 지역으로 삼고, 통구스족인 부여종(고구려 포함)과 관련되며, 현대 한민족의 조상인 韓族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그는 단군전설을 다음의 세종류로 구분하였다. ① 단군은 제석천 환인의 아들 환웅과 곰 사이에서 태어난 神人으로서, 그 자손에게 왕통을 잇게 하지 않았다(『三國遺事』「古朝鮮」조). ② 단군은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 주몽의 아버지이다(『三國遺事』「王曆」). ③ 단군은 환인의 아들 단웅의 손녀(사실은 웅녀)와 단수신이 혼인하여 낳은 자식이다. 단군의 태자인 부루는 동부여의 왕이 된다(『世宗實錄』地理志 인용『檀君古記』). 이것은 시조 神人이 神獸交媾하여 자식을 얻는다는 것으로 아시아 북방대륙 민속과 공통된다. 人獸交媾는 일본민족의 경우 국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천신과 지신의 격노를 초래하여 국토에 재해를 불러오는 것으로 여겨졌다. 한민족의 神人은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신령한 땅(淨地)에서 나오는 등 일본과 흡사하다고 보았다.

넷째 단군전설은 일연의 시대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꾸며낸 것이라 주장한다. 이마니시는 일연이 『三國遺事』에 단군을 수록한 것은 몽골 침입 40년의 국난을 당했던 시대와 관련된다고 한다. 일연이 지어낸 것으로 보기에는 불교 색채가 너무 적다고 보았다. 왕검선인의 본래 전설은 해모수전설이 민간에 전해진 것으로 고려시대에 승려, 무당이 미화하여 제석환인의 神孫으로 만들고 단군이라는 神號를 부여하여 단군왕검으로 만들고, 조선 전체를 개창한 신인인 것처럼 기원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 전설의 구조를 살펴보면 자구에 도교적 요소가 많다고 언급한다.

다섯째 단군전설과 스사노오 전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마니시는 다만 일본에서 스사노오가 후세의 무속인 무리에 의해 해열의 묘약인 旃丹을 생산한다는 인도의 牛首山 천왕이 속세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하고, 그가 역병을 막는 신으로 제사되어 牛首의 한국말 혼독이 우연히 ‘소머리(曾茂梨)’가 되기 때문에 牛首天王的 칭호는 조선의 소머리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스사노오가 단군과 동일한 神人이라는 설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였다.

2. 단군 연구의 문제점 분석

이마니시는 그때까지 어떤 일본학자보다도 방대한 분량의 단군 연구를 진행했지만 적지 않은 오류와 문제점이 발견된다.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魏書』에 단군전승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이다. 이마니시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三國遺事』가 인용한 『魏書』는 위수가 편찬한 『魏書』라는 전제아래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남선이 지적한 것처럼 『魏書』라고 불릴 수 있는 책은 위수의 『魏書』 외에 많은 문헌이 있었다. 따라서 현존하지 않는 曹魏系 『魏書』와 北魏系 『魏書』 중에 일연이 인용한 『魏書』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三國遺事』가 인용한 『魏書』는 현존하는 북송대 교감본이 아니라 그 이전 위수가 편찬한대로의 古本 『魏書』라는 견해⁹⁾도 있다. 한편 3세기 이후에는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기자조선설이 중국정사에 확고히 정착되어 갔다. 따라서 조선의 독자적인 시조 기록이 『魏書』에 한차례 실렸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이마니시는 단군의 실체에 대해 ‘王儉’은 신선의 호칭이고 지명인 ‘王險’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王儉’이 평양의 옛지명인 ‘王險’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거나 해모수와 동일인이라 본 것은 큰 오류가 있다. 먼저 王儉과 王險 문제를 살펴본다면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王儉 혹은 儉은 단군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王儉’은 중국의 왕호가 들어온 이후의 명칭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고조선 건국자의 이름은 ‘왕검’ 보다는 ‘검’이 더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¹⁰⁾ 이에 ‘왕검’을 고조선 통치자의 칭호가 기존의 ‘검’에서 이후 한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자어와 우리 고유어를 병기한 용어라고 파악한 연구가 있다.¹¹⁾ ‘검’은 고조선 건국자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이자 고조선 통치자의 호칭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¹²⁾ 즉 ‘왕검’은 ‘임검’이라는 의미인데 그 유래는 시조를 가리키는 호칭인 ‘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史記』·『漢書』『朝鮮列傳』은 만왕의 도읍지를 ‘王險’으로 기록하였는데 중국문헌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고조선의 도읍 명칭이다. 『三國史記』는 “평양은 본래 仙人 王儉의宅이다. 혹은 왕의 도읍을 王險이라 한다.”¹³⁾고 하였다. 이를 통해 평양이 단군왕검과 관련된 지역이라는 사실과 평양과 王險의 관련성도 알 수 있다. 『三國遺事』『魏滿朝鮮』조는 『漢書』『朝鮮傳』을 거의 그대로 전제하면서도 ‘王險’을 ‘王儉’으로 고쳐 기록하였다.¹⁴⁾

이것은 중국문헌에는 ‘王險’이라 했지만 우리문헌은 ‘王儉’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이는 『三國遺事』가 고조선의 왕성으로 전해진 왕험성을 왕검성으로 파악하여 고조선 왕검의 성이란 뜻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王險은 『漢書』地理志 遼東郡條의 險瀆의 註는 강에 의거하여 지세가 험준하다는 뜻으로 훈독하여 ‘險’자를 붙였는데¹⁵⁾ 이러한 방법은 중국식 借字表記

9) 박대재, 2001, 「『三國遺事』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21~29쪽.

10) 조원진, 2015, 「단군신화의 구조 연구 -시대별 변천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8, 118쪽.

11) 서영수, 2006,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국가·문화·교역』, 학연문화사, 36쪽.

12) 이러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몽골에서 원래 칭기스 칸의 후계자인 우구데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인 ‘카안’이라는 칭호가 우구데이 사후에 여러 명의 ‘칸’을 거느리는 군주를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바뀌었다(김호동, 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121~123쪽).

13)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 第5 東川王 21年條, “平壤者 李仙人王儉之宅也 或云 王之都王險”

14) 『三國遺事』卷1 紀異1 魏滿朝鮮條.

15) 『漢書』卷28 地理志 8下 遼東郡條 “險瀆(依水險 故曰險瀆)”

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지명을 표기할 경우 ‘險’이라 표기하는 반면에,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卬丘儉 張儉과 같이 ‘儉’이라 표기한 것이다.¹⁶⁾ 따라서 평양의 옛 지명인 왕험에서 왕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이마니시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마니시는 단군을 해모수와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단군의 아들 부루는 하나라 우임금의 도산희회에 참석하였다는 인물로 동부여를 세운 해부루와는 시대가 다르다.¹⁷⁾ 단군의 아들이 부루이고 도산에 부루를 보내 禹에게 조회하였다는 내용은 『三國遺事』와 『帝王韻紀』에는 보이지 않다가 조선시대 자료인 『應製詩註』와 『世宗實錄』 地理志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¹⁸⁾ 단군의 아들이 동부여 해부루라는 것은 단군전승이 고조선 멸망 이후 전승 과정에서 부여·고구려 신화와 혼재되면서 발생한 인식으로 이해된다. 단군의 가족관계에 대해 『應製詩註』 등에는 단군이 非西岬의 ‘河伯之女’와 혼인하여 夫妻를 낳았다고 기록했다.¹⁹⁾ 하백녀는 고구려 시조의 어머니로도 기록되는 점에서 특징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의 여성 신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⁰⁾

마지막으로 이마니시의 단군 연구는 단군 전승에 도교적 요소가 많다는 전제 아래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마니시는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삼백육십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교화시켰다는 것이 도교사상과 똑같으며, ‘下視三危太伯’는 도교적인 언사이고, 단군은 존칭이고 왕검은 그의 본명이 되는데 신인에게 君號를 붙이는 것은 도교를 모방한 것이라 주장한다.

즉 이마니시는 단군 전승의 구조와 삼위 태백, 풍백, 우사 등의 용어가 도교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인데 이러한 논지는 대단히 작위적인 것이다. 삼위와 태백은 별자리 이름이든 산의 이름이든, 혹은 두 개의 산으로 보든 하나의 산으로 보든 상관없이 도교적인 내용이라 단언할 수 없다. 결국 이마니시가 삼위와 태백을 도교적인 용어로 단정한 것은 단군을 평양지역의 산신 즉 왕검선인으로 이해하려는 의도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²¹⁾ 또한 삼위는 ‘사뫼’의 對字로 ‘사뫼’는 上의 ‘환’界와 下의 ‘굿’界에 대한 조선민족의 人間界를 부르는 명칭이라 보기도 하며,²²⁾ 풍백·우사·운사는 원시조선의 산물로 구전되어 오다가 문자로 기록될 때 도교에서 쓰는 말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할

16) 선석열, 2022, 「일인 관학자들의 단군신화의 불가조작설과 그 비판」 『한일관계사연구』 76, 199~200쪽.

17) 안정복은 활동시대가 다른 2명의 부루가 있었다고 추정하였다(『東史綱目』 附卷上 考異).

18) 김성환, 2002, 『고려시대의 단군전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47~48쪽.

19) 『應製詩註』 始古開闢東夷主, “娶非西岬河伯之女 生子曰夫妻”

20) 이지영, 2006, 「河伯女, 柳花를 둘러싼 고구려 건국신화의 전승 문제」 『동아시아고대학』 13, 26쪽.

21) 이근우, 2021, 앞의 논문, 10~11쪽.

22) 최남선, 1973, 앞의 책, 193쪽.

수 있다.²³⁾ 이마니시는 단군 전승에서 불교적 요소는 적으며 구조를 보면 字句 상에 도교적 요소는 많다고 했으나 그가 언급한 도교적 요소는 단군 전승의 원형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편 이마니시는 다른 일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지식인들이 단군을 상징화시켜 민족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배경이 단군부정론 입장의 논문을 발표하게 된 계기로 보인다. 그의 단군 연구는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와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연구를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하지만 기존 학자들과의 차이점도 발견된다. 즉 시라토리는 단군전설이 고구려 장수왕대에 만들어졌고 『三國遺事』가 인용한 『魏書』은 북제 위수의 『魏書』라고 본 반면 이마니시는 단군전설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졌고 위수의 『魏書』에는 단군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학자는 주로 佛說에 근거하여 단군전설이 만들어졌다고 보았지만 이마니시는 도교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한 점이 차이가 있다. 이마니시 이후 일본학계에서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단군 연구는 나오지 않은 점은 당시 시대 분위기와 함께 단군 왜곡의 정점에 있었던 연구가 이마니시의 「檀君考」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Ⅲ. 기자 연구 내용과 분석

1. 이마니시의 기자 연구 내용

이마니시 류가 장문의 기자조선 논문을 작성한 것은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조사단에 참가하여 대동강 남안에서 낙랑군 유적을 조사한 이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마니시는 강점이 전 동경제대 대학원에서 수학하던 당시부터 한국을 답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906년 동경제국대학의 주관으로 혼자서 경주지역을 답사했으며, 1907년에는 金海貝塚를 발견했으며, 1909년에는 동경제대 교수로 동양사를 전공하던 하기노 요시유키(萩野由之)의 조수로 평양 주변의 분묘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대동강 유역의 고분군에 대해서 일본학계는 초반에는 고구려 고분설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낙랑 고분설로 전환하는데 이마니시도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된다.²⁵⁾ 그는 1910년

23) 김정학, 1954, 「단군신화와 토오테미즘」 『역사학보』 7, 280~281쪽.

24) 北山祥子, 2021, 「日本人の檀君研究」 『한일관계사연구』 74, 114~116쪽.

25) 정상우, 2008,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축탁(囑託)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68, 257~258쪽.

이 시기의 일본의 낙랑 고분 발굴과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에 발표한 「朝鮮平壤郡大同江南の古墳」²⁶⁾에서 고구려고분설을 주장했으나 1912년 「大同江南の古墳と樂浪王氏との關係」²⁷⁾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기존의 통설을 바꾸게 된다. 이마니시는 이를 통해 자신이 조수로 발굴에 참여한 대동강 남쪽 전곽고분이 樂浪王氏와 관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마니시는 이 논문에서 고분의 주인공과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지방의 역사적 변천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며 평양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평양은 옛날부터 반도 북부의 중요한 지역으로 지나 민족이 건설한 고조선의 수도 왕험성의 址이다. (2) 대동강은 『漢書』地理志의 列水이며 왕험성이 평양인 것은 확실하다. (3) 지나 민족의 독립 小王國인 위씨조선이 한제국에 멸망하고 그 고지에 현도·낙랑·진번·임둔의 4군을 두어 모두 한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4) 낙랑은 지금의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영유하고 그 군치는 조선현을 주현으로 하는 王險古城址였다. (5) 이후 공손강이 대방군을 설치하여 위나라 초기에 낙랑, 대방의 위세가 점차 회복되었으나 낙랑의 중심은 여전히 평양에 있었다. 대방의 치소는 지금의 漢水 하류에 있었는데 韓民族이 봉기하여 2개 군을 멸망시켰다. 이때 고구려는 남진하여 평양으로 진입하고 백제도 남방에서 일어났다. 이에 위나라는 관구검과 왕기를 장군으로 삼아 고구려를 크게 정벌하여 낙랑·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일시적으로 회복하였다. (6) 장통이 313년 천여 家를 거느리고 모용외에게 귀의하였는데 이는 대동강유역이 확실히 고구려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4세기 초에 대동강 유역을 확실히 영유하고 백여 년이 지나 장수왕 15년에 평양을 수도로 삼았다. 그 순서는 고조선(漢民族)-낙랑의 漢人-고구려-신라-고려 혹은 조선인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이마니시는 고조선을 漢民族의 국가로 보면서 기씨조선도 배제하고 위씨조선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 토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낙랑 사람으로 이름을 기록에 남기는 자는 왕씨뿐이기 때문에 왕씨는 낙랑의 큰 호족으로 보았다. 또한 발견된 유물 중에 覆輪金具에 새겨진 “王□”은 고구려 왕씨가 아닌 낙랑 왕씨로 이 고분은 낙랑 고분이라 결론을 지었다.

이를 통해 이마니시는 대동강 남쪽의 고분의 피장자와 낙랑 왕씨 집단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뒷날 기자 계보가 낙랑 한씨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때 확인한 낙랑 호족의 존재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마니시는 이후에 일제가 1915년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을 시작하며 1916년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적 조사에 착수하여 1차년도 고적조사로 평양 등 북부

정인성, 2006, 「관야정의 낙랑유적 조사연구 재검토」 『湖南考古學報』 24.

26) 今西龍, 1910, 「朝鮮平壤郡大同江南の古墳」 『人類學雜誌』 25-8.

27) 今西龍, 1912, 「大同江南の古墳と樂浪王氏との關係」 『東洋學報』 2-1(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277~290쪽).

지방 조사에 나서자 여기에도 참여했다.²⁸⁾

이마니시는 「大同江南の古墳と樂浪王氏との關係」를 발표한지 10년만인 1922년 장문의 「箕子朝鮮傳説考」²⁹⁾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단군조선에 이어 기자조선도 부인하게 된다. 그는 『史記』, 『漢書』, 『魏略』, 『三國志』의 기자조선 관련 기록은 중국에서 날조한 전설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옛 전승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에 대한 것이 처음이며 그 이전에 전해오는 것은 오직 중국 사적에 의거하여 알 뿐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사적의 기록에 『史記』 「朝鮮列傳」은 위씨조선의 흥망에 대한 것이고,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史記』와 『漢書』에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실렸으며, 『三國志』 「韓傳」에는 기자 자손에 관한 기록이 있다. 기자조선은 중국 사서가 날조한 전설이며 한국에는 본래 이런 전설이 없었다.

둘째 『史記』·『漢書』의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기록은 단지 조각조각난 전설을 기재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사마천은 「朝鮮列傳」에서 위씨조선의 흥망을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세하고 정확하다. 「殷本紀」와 「周本紀」는 기자와 관련하여 그가 주왕에게 갇혔다가 풀려났으며 무왕이 기자에게 天道를 물었음을 기록했다. 사마천은 「本紀」와 「朝鮮列傳」을 기록하며 당시 기자조선 전설을 전해 들어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자 전설에 대해 사마천은 「宋微子世家」에는 기록했지만 「朝鮮列傳」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漢書』도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地理志」에만 기록하고 「朝鮮傳」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漢書』 「朝鮮傳」은 『史記』 「朝鮮列傳」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漢書』에서 기자조선에 대한 것은 오직 「地理志」에서 기자가 조선에 가서 행한 일과 범금팔조를 기록한 것이다. 위씨조선은 중국민족의 국가이며 그 이전 조선은 韓民族의 나라였는데 군현을 설치하면서 그 땅에 인현의 나라의 문화가 파괴되었음을 비평했다. 기자조선과 관련된 『史記』·『漢書』의 기사는 간략하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자조선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셋째 『魏略』의 기사는 상세하지만 정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기자조선은 魏代 어환의 『魏略』에 이르러 사실로 기록되었다. 진수의 『三國志』 「韓傳」은 『魏略』에 의거하여 기록했으며 여기에 『魏略』 외에 다른 기사를 포함하였다. 현재 전하는 『三國志』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魏略』의 기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三國志』는 마지막 왕 준이 왕을 칭했다고 했고, 『魏略』은 진개가 정벌하기

28) 서영희, 2022,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자료수집과 역사편찬』, 사회평론아카데미, 92~93쪽.

29) 今西龍, 1922, 「箕子朝鮮傳説考」 『支那學』 2卷 10・11號(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31~174쪽).

이전에 왕을 칭했다고 하였다.

기자조선이 위만에게 멸망한 것은 漢 惠帝代로 『魏略』은 이 조선이 멸망한지 약 450년이 경과한 후의 기록이며, 『史記』가 저술되고 350년 후의 기록이다. 그런데 『魏略』에 이르러 기록이 상세해졌는데 이것은 漢이 군현을 설치하고 낙랑·대방 사람들의 전설을 사료로 사용한 것이라 보았다.

『史記』에서 滿이 조선에 올 때의 복식을 夷服이라 했는데 이러한 기재는 정확한데 반면 『魏略』에서 위만이 망명할 때 胡服을 입었다고 한 것에서 그 기록이 정확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넷째 『魏略』의 기자조선에 대한 기재는 낙랑 韓氏 僞系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魏略』의 기사를 보면 기자조선이 중국민족의 국가로 周나라의 후국인 춘추전국시대 열국의 하나로 나온다. 만일 춘추 열국의 하나로 기자 자손의 나라가 해동에 존재했다면 전국~한대 여러 책에 그 사실이 실려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다. 『魏略』 기사 출처는 낙랑 韓氏 僞系譜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魏略』은 준왕의 아들 및 친척으로 나라에 머문자들이 거짓으로 韓氏를 칭했다고 했다. 따라서 이 기사는 낙랑 한씨가 전조선 왕실의 자손을 칭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후예를 칭했다면 계보가 있었을 것이다. 즉 『魏略』의 기사는 낙랑의 한씨가 만든 계보를 어환이 잘못 채용한 것이다. 조선에는 그러한 전설이 없었는데 낙랑 한씨가 가문 치장을 위해 조선왕의 후계자를 칭하면서 가작했다는 것이다.

『史記』에는 위만조선의 韓陰이 漢나라 제후에 봉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韓陰은 후사가 이어지지 못했지만 菟婁에 봉해져 발해에 나라가 있었다. 기자의 후예를 칭한 것은 이 한씨인지 다른 한씨인지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낙랑 한씨는 고분의 명문에서도 확인되어 그 존재가 명확한 낙랑의 호족이다.

다섯째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된 전설을 믿을 수 없는 것은 『史記集解』의 쑤 두예가 말한 梁나라 몽현에 기자 무덤이 있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 이마니시는 평양의 기자 무덤, 기자정전유적, 기자세계보는 모두 후대 사람이 위조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이마니시는 기자 동래는 물론 기원전 3세기 이전 고조선의 존재도 부정하였다. 이미 시라토리가 기자 동래를 부인하면서 부왕·준왕의 이름도 『易經』에서 따온 것으로 보면서도 고조선의 기원이나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의 존재를 모호하게 한 바 있다.³⁰⁾ 이마니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위만조선 이전 조선의 역사가 기록된 『魏略』의 사료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며 기자에서 준왕까지 40대가 이어왔다는 기록도 낙랑 한씨 계보에 근거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보았다.

30) 白鳥庫吉, 1910, 「箕子は朝鮮の始祖に非ず」 『東京日日新聞』 1910.8.31. (1970, 『白鳥庫吉 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2. 이마니시의 기자 연구의 문제점 분석

이마니시가 기자 동래를 부정한 것은 우리학계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마니시는 기자 동래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魏略』의 사료적 가치도 불신하였다. 『三國志』 「韓傳」은 『魏略』을 인용하여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이 燕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주왕실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등 윤색된 구절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기록에는 고조선과 燕나라의 대립, 고조선 부왕이 秦나라와 구체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치는 모습, 위만이 망명해오자 준왕이 서쪽 변방을 지키게 했다가 나라를 잃는 과정 등 다른 문헌에는 전하지 않는 고조선의 역사상이 기록되어 있다. 일부 윤색된 구절이 있더라도 『魏略』의 사료적 가치와 구체적인 실체가 기록된 부왕과 준왕의 역사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³¹⁾

또한 이마니시는 어환의 『魏略』에 낙랑 한씨 위계보에 근거하여 기자의 자손에 대해 기록하면서 『三國志』 및 배송지注에 실리게 되어 후대에 전해졌다고 주장한다. 『三國志』 「韓傳」에 인용된 『魏略』 기록과 『三國志』에 기록된 기자와 그 후손에 대한 기록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魏略』과 『三國志』의 기자 관련 기록

연번	출처	내용	비고
1	『三國志』 「韓傳」 所引 『魏略』	○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 朝鮮遂弱 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否死 其子準立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及漢以盧綰爲燕王 朝鮮與燕界於 涓水 及綰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涓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故)[收]中國亡命 爲朝鮮藩屏 準信寵之 拜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誘亡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 魏略曰 其子及親留在國者 因冒姓韓氏 準王海中 不與朝鮮相往來 ○ 魏略曰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 貢蕃不相往來	昔箕子之後朝鮮侯
2	『三國志』 「韓傳」	○ 準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 其後絕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	
3	『三國志』 「滅傳」	○ 昔箕子既適朝鮮 作八條之教以教之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 其後四十餘世朝鮮侯(淮)[準]僭號稱王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燕人衛滿 魋結夷服 復來王之 漢武帝伐滅朝鮮 分其地爲四郡 自是之後 胡漢稍別	其後四十餘世朝鮮侯準

31) 조원진, 2022,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40, 347~348쪽.

『魏略』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왕을 기자와 연결시킨 유일한 구절은 ‘昔箕子之後朝鮮侯’이다. 여기서 ‘箕子之後’를 ‘기자의 후예’로 해석하면서 ‘기자-조선후-부왕-준왕’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箕子之後’는 ‘기자 이후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³²⁾ 이외에 『三國志』 「韓傳」에는 준왕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기자와 관련된 구절은 없다. 『三國志』 「韓傳」에는 기자가 조선에 가서 금법팔조를 행한 내용을 다루고 이어서 40여 세를 지나 조선후 준이 왕을 일컬었다고 기록했다. 『魏略』에 의하면 조선의 통치자가 왕을 칭한 것은 전국시대 연나라와 대립하던 기원전 320년경이기 때문에 두 기록은 차이를 보인다. 『三國志』 「韓傳」의 기록은 『魏略』의 기록을 축약하면서 오류가 난 것인지 준왕 이전 대외적으로 왕호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마니시가 주장한 것처럼 『魏略』이 낙랑 한씨 위계보에 근거하여 기자 후손에 대해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없다. 무엇보다 고조선의 통치자를 기자의 후손으로 직접 연결시킨 기사는 『魏略』이 아니라 『三國志』 「韓傳」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위만에게 밀려난 고조선 마지막 통치자에 대한 기록은 後漢 王符가 편찬한 『潛夫論』에 처음 나온다. 이 기록에 의하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통치자는 韓을 姓으로 하는 韓西이며 이후 거처를 海中으로 옮겼다고 한다.³³⁾ 이 기록은 고조선 마지막 통치자의 姓이 韓이며 기자와의 연관도 없음을 알려준다. 『魏略』에서는 ‘韓西’를 ‘準王’으로 표기한 것은 다르지만 망명지를 海中으로 본 것은 『潛夫論』과 같다. 그런데 『三國志』는 준왕을 기자의 40세손으로 기록하여 기자와 고조선 통치자를 직접 연결시키고 준왕 망명지를 ‘韓地’라고 서술하게 된다. 따라서 고조선 통치자 및 韓氏와 기자는 본래 관계가 없었는데 『三國志』 단계에 이르게 되면서 기자와 준왕을 연결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마니시는 『魏略』의 사료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사를 서술할 때 고조선은 아예 생략을 하거나 『魏略』에 나오는 왕을 칭하며 연나라와 대립한 조선후의 존재는 생략한 채 진개 침입 이후부터 고조선을 서술하게 된다. 일본학자들은 단군을 부정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기자 조선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엇갈렸다. 旗田 巍의 『朝鮮史』(1951)는 중국인을 지배자로 하는 기자조선이 한반도 최초의 국가였다고 하며 기자조선을 여전히 인정하기도 했다.³⁴⁾ 그러나 이후 일본학계는 기자조선도 점차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었다. 또한 이마니시가 『魏略』에 나오는 고조선 기자의 사료적 가치를 낮게 보는 연구 경향은 이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에 『魏略』에

32) 鄭寅普, 1935, 「五千年間 朝鮮의 ‘얼’」 『東亞日報』 1935년 1월 29일~31일; 1946, 『朝鮮史研究』 上, 서울신문사, 57~63쪽.

33) 『潛夫論』 卷9 志氏姓 第35, “昔周宣王亦有韓侯 其國也近燕 故詩云 普彼韓城 燕師所完 其後韓西亦姓韓 爲魏滿所伐 遷居海中”

34) 천관우, 1952, 「旗田 巍 著 朝鮮史」 『역사학보』 1, 127쪽.

나오는 조선후는 기자와 마지막 준왕을 연결시키기 위해 어환이 창출해낸 인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³⁵⁾

IV. 고조선 계통 및 영역 연구와 문제점

1. 고조선 계통 문제

이마니시 류가 단군을 허구라고 보고 부정한 것은 그의 조선사 인식과도 관련된다. 이마니시는 조선민족이 기본적으로 혼성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남부 ‘韓民族’이라고 보았다. 즉 ‘한민족’의 구성원인 백제(마한), 신라(진한), 가야(변한)는 ‘부여종’의 한 갈래인 ‘예맥족’ 국가 고구려와 구분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가 북방민족의 신화인 단군신화를 부정한 것은 조선민족에게서 북방민족을 지우는 작업이기도 했던 것이다.³⁶⁾

이마니시는 1919년 교토제국대학에서 조선사를 강의했는데 이때 발표한 강의원고는 그의 사후 발간된 『朝鮮史の槩』(1935)에 「朝鮮史概説」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朝鮮史概説」은 모두 6편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편 上古에는 이마니시의 단군·기자개국설 및 고조선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다. 이마니시는 기원전 3세기 한반도에는 북방에 조선, 남방에 진번, 동남에 진국, 동방에 임둔이 있었으며 임둔은 濊족이며 조선·진번·진국은 韓족의 나라라고 보았다. 조선은 전국 시대 열수(대동강) 남쪽으로 후퇴하였고 漢과의 경계인 패수는 청천강이 아니며, 청천강~자비령까지는 공지로 위만의 초기 거주지라 보았다. 위만은 남쪽의 조선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대동강 북쪽 평양에 도읍을 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위만 이전의 기자가 와서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조선과 이후 위만조선은 성격이나 강역이 다르다고 보았다. 즉 전자는 한강(옛 대수) 유역을 중심으로 한 韓種族의 나라이고 후자는 대동강(열수)를 중심으로 한 중국민족(支那民族)의 나라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이마니시는 고조선의 역사를 위만조선과 그 이전 기원전 3세기의 조선만 인정하고 있다.

35) 江畑武, 1989, 「箕子朝鮮開國傳承の展開 -『漢書』・『魏略』・『魏志』を中心に-」 『阪南論集 人文・自然科学編』 25(1-3), 38~39쪽.

36) 심희찬, 2013,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구축한 조선의 歷史像」 『韓國史學史學報』 28, 297~306쪽.

그리고 이마니시는 조선고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중국 선진문화의 전파를 중요한 動因으로 생각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문물이 전파되는 거점으로서 낙랑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또한 그는 낙랑군의 漢族에 대해 기본적으로 현재 조선민족에 합류한 일부 흐름으로 간주하였다.³⁷⁾

이러한 이마니시의 고조선 인식은 그가 집필로 참여한 『朝鮮半島史』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朝鮮半島史』의 편찬사업은 최초의 2년에서 2차례에 걸쳐 연장되면서 집필진도 대폭 교체되지만 이마니시는 편집주임 중에서 유일하게 교체되지 않았다. 원래 4편으로 구상했던 『朝鮮半島史』는 편집주임의 논의를 거쳐 전면 6편으로 재구성되었는데 통일신라 이전의 세 편을 상세사로 묶어 이마니시가 맡게 되었다.³⁸⁾ 이마니시는 고대사 부분을 맡아 『朝鮮半島史』를 집필하면서 제1편을 ‘상고 삼한’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단군조선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전설로 취급하여 이 시기를 원시시대로 구분하고, 기자조선도 전설로 치부하여 이 시기는 중국인과 조선이 혼재하여 거주하던 부락적 소국의 시기였고 고조선은 위씨조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³⁹⁾ 『朝鮮半島史』의 편찬은 끝내 무산되었으나 이러한 인식은 『朝鮮史』로도 이어졌다. 『朝鮮史』는 단군조선·기자조선에 해당하는 시기의 역사 및 고조선의 기원 문제를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朝鮮史』는 『朝鮮半島史』와 같은 특정 역사상을 제시하는 通史 서술이 아닌 사료의 수집과 편찬을 목표로 하였다. 이마니시는 『朝鮮半島史』에 이어 『朝鮮史』의 고대사 부분인 1~2편 편찬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가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등 새로운 인물이 사업을 주도함에 따라 기존의 이마니시나 오다 쇼고 등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편수회 내에서 갈등이 있었고 이마니시는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표는 반려되었고 이나바는 이마니시를 『朝鮮史』 편찬의 마지막 작업인 ‘심의’에 참여시키며 편수회 내에서 그의 위상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는 것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최남선이 처음으로 단군 수록 여부를 제기했을 때 당시 『朝鮮史』는 조선민족 중심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방의 역사를 제외된다며 최남선을 막아선 이가 이마니시였다. 이후 이마니시는 ‘단군’으로 대변되는 편찬 범위에 관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⁴⁰⁾ 단군 문제는 『朝鮮史』를 편찬하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朝鮮史』를 편찬하면서 나타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단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한국사의 시원문제를 가능한 한 수록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의도는 고대사 서술에서 ‘사료’에만 의존하겠다는 의도를 고

37) 정준영, 2017, 앞의 논문, 185~186쪽.

38) 장신, 2009,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369~371쪽.

39) 김성민, 2008, 「해제: 일제의 조선역사 왜곡정책 조선반도사의 실체와 조선사 편찬」 『친일반민족행위관계 사료집』 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0~13쪽, 25~26쪽.

40) 정상우, 2018,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아연, 181~207쪽.

집한 것과 사회·사설체의 수많은 사료는 편년체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제거한데서 잘 드러난다. 결국 단군 문제는 제9차 위원회에서 이나바 간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고려 말기의 백문보 사망 기사에서 취급하게 되었다. 결국 『朝鮮史』에서 단군은 그 연대를 알 수 없는 비역사적인 존재로서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말았다.⁴¹⁾

이처럼 이마니시는 단군의 역사성을 부인하면서 조선민족과 관계없는 북방의 전설로 이해하고, 부여·고구려의 濊貊族과 韓種族은 무관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한국사를 한반도의 韓種族과 관련된 역사로 국한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많은 문제가 있다. 먼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일본학계는 3.1운동 이후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독립 주장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조선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함으로써 조선 민족 독립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부정하며, 한편으로 남부의 韓과 일본의 친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발전시켜 나갔다.⁴²⁾ 이마니시가 단군을 부정한 것도 이러한 일본학계의 동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신라를 다른 민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삼국시대가 진전되면서 삼국의 주민들은 여러 면에서 동질성이 두텁게 형성되어 보수성이 강한 무덤 양식도 석실봉토분이 주류를 이루는 공통성을 띠게 된다. 물질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제도·의복·종교·예술·문자생활 등도 삼국은 서로 비슷한 면을 공유하였으며 이러한 삼국을 수·당대인들은 三韓이라 하여 한 범주로 파악하였다.⁴³⁾ 또한 이미 삼국시대 이전에도 중국 동북지역의 점토대토기 문화가 한반도 남부까지 널리 확산되었고,⁴⁴⁾ 『三國志』·『後漢書』 등에는 고조선의 준왕이 韓 또는 마한의 왕이 되었다고 했으며, 『三國史記』 신라본기에서는 조선 유민이 진한6부를 이루었다고 하였다.⁴⁵⁾ 이를 통해 고조선은 韓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⁶⁾

또한 이마니시는 위만 정권을 중국계로 보아 그 성격을 중국민족(支那民族)의 나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위만은 조선계 출신이라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⁴⁷⁾ 위만이 조선으로 올 때 ‘椎結蠻夷服’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다른 중원계 유이민과 구분되는 조선의 풍속을 간직한

41) 이만열, 2007,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한국사 연구」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496~498쪽.

42) 오영찬, 2019, 「민족의 기원을 찾아서 -한국 상고 민족 담론의 창안-」 『한국문화연구』 37, 116~117쪽.

43)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3~35쪽.

44) 김민경, 2014, 「遼寧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변천과 파급」 『한국청동기학보』 15; 배현준, 2019, 「비파형 동검문화 성립 이후 요서지역의 토기문화 시론 -점토대토기와 관계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113; 오강원, 2020, 「중국 동북 지역 점토대토기의 연대와 전개」 『영남고고학』 87.

45)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始祖赫居世居西干 元年, "先是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 爲六村"

46) 김남중, 2020, 「점토대토기 문화의 확산과 고조선, 고구려, 한의 관계」 『선사와고대』 64, 45~54쪽.

47) 이병도,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76~82쪽; 서영수, 1996, 「위만조선의 형성과정과 국가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9, 92~97쪽.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⁴⁸⁾ 준왕이 특별히 위만을 신임하여 박사로 임명한 것은 위만과 그가 거느린 집단이 조선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변방을 맡길만한 실력도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고조선 영역 문제

이마니시는 고조선 영역과 관련하여 몇편의 논문을 제출하였다. 그중 조선과 관련된 열수의 위치를 고증한 「洌水考」⁴⁹⁾가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기씨조선과 한 낙랑군시대의 그 일대 하천 명칭 중 지나 고적에 나오는三水인 洌水, 溟水, 帶水 위치가 고대 지리상 문제를 밝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마니시는 帶水는 한강으로 보았으며 「洌水考」에서 洌水가 대동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점제비>를 발견하여 열수는 대동강이 분명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평양은 왕험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史記集解』에서三水가 합쳐져 열수가 된다는 기사(張晏曰 朝鮮有溟水洌水泗水 三水合爲洌水)가 있는데 대동강은 대동강 본류에 해당하는 靜戎江, 沸流江, 能城江의 세 강이 합류하기 때문에 열수는 대동강이 적합하다고 이해했다. 열수 유역은 한반도에서 燕·齊와 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역으로 가장 빨리 지나 문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전국 燕나라의 압박으로 조선은 중심을 남방으로 옮겼다고 보았다. 또한 이마니시는 낙랑군 조선현치는 지금의 강북 평양 근처에 있었으며 대동강면의 토성은 고구려의 위협으로 옮겨간 군치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마니시는 고조선의 남계와 관련하여 「眞番郡考」를 통해 진번군은 충청도와 전라북도에 설치되었으며 치소인 靺縣은 금강유역에 있었다고 보았다.⁵⁰⁾ 일본학계의 진번 위치에 대한 논의는 초기의 재북설⁵¹⁾에서 점차 재남설로 정리되는데 이는 한군현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그 범위를 한반

48) 반면 魑結 풍습은 고조선 외 다른 지역에도 확인된다는 점과 남월도 전대의 국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위만을 고조선계로 보는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도 나왔다(김한규, 1980, 「衛滿朝鮮關係 中國側史料에 대한 再檢討」, 『論文集』 8, 132~135쪽). 최근에는 『史記』 열전은 각 인물의 출신 고을이나 주요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물 소개를 하기 때문에 「朝鮮列傳」의 기록으로 위만의 구체적인 출신 종족을 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김남중, 2014, 「위만의 출신 종족에 대한 再考」, 『선사와 고대』 42, 8~11쪽).

49) 今西龍, 1929, 「洌水考」, 『朝鮮支那文化の研究』, 京城帝國大學(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75~230쪽).

50) 今西龍, 1916, 「眞番郡考」, 『史林』 1·1(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231~268쪽).

51) 白鳥庫吉, 1912, 「漢の朝鮮四郡疆域考」, 『東洋學報』 2-2, 126~133쪽(1970, 『白鳥庫吉全集3: 朝鮮史研究』, 岩波書店, 288~295쪽); 白鳥庫吉·箭內互, 1913, 「第一篇 漢代の朝鮮」, 『滿洲歷史地理』 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3~12쪽;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 朝鮮樂浪玄菟帶方考」, 『史學雜誌』 5-4, 45~46쪽.

도 남부지역까지 확대해본 것이다.

이마니시는 「百衲本史記の朝鮮傳について」를 통해 진번 재납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백납본 『史記』 「朝鮮列傳」을 검토하기도 하였다.⁵²⁾ 『史記』 「朝鮮列傳」에는 “(우거왕은) 眞番 주변의 여러 나라들[衆國]이 글을 올려 天子를 알현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가로막아 통하지 못하게 했다.”⁵³⁾는 기록이 있다. 이마니시는 백납본 『史記』부터 북송본은 ‘眞番旁衆國’이라고 쓰여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그는 眞番은 『史記』에 3번 정도 나오고 한사군의 하나로 널리 알려졌으나 辰國은 『史記』·『漢書』 「朝鮮列傳」에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 현행본 『史記』에 ‘辰’을 ‘衆’이라 잘못 쓰는 일이 생겼다고 보았다. 그리고 『漢書』는 『史記』의 ‘眞番旁衆國’을 ‘眞番과 그 주변의 辰國’이라 보고 ‘旁’을 빼고 ‘眞番辰國’이라 썼다고 보았다. 또한 진국은 현재의 경상도 방면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마니시는 백납본 『史記』 기록이 진번과 한 영토 사이의 조선의 존재를 명백히 말해준다고 보았다. 이마니시는 이를 통해 진번을 충청도와 전라북도로, 진국을 경상도로 비정하였다.

이마니시는 이외에 「朝鮮史概說」 제2편에서 한군현과 삼한을 다루면서 한군현의 위치를 검토하였다.⁵⁴⁾ 그는 낙랑은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평안도·황해도와 경기도 일부를 관할하고, 현도군은 함경도 방면에서 옥저, 고구려 등의 종족을 포괄했으며, 진번군은 금강 유역에 있으면서 한중족을 포괄하고, 임둔군은 강원도 방면에서 예맥 종족을 포괄했다고 보았다. 즉 이마니시는 한군현의 강역을 지금의 경상도와 전라남도 및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체 조선과 압록강 중류지역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많은 문제가 있다. 먼저 이마니시는 열수를 대동강으로 비정하고 燕나라의 침입으로 고조선은 대동강 남쪽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한다. 고조선과 燕나라의 전쟁후 경계는 滿番汗으로 기록되었다.⁵⁵⁾ 滿番汗은 후대의 지명으로 『漢書』 地理志에 나타난 요동군의 속현인 문현과 변한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변한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요동의 천산산맥 이서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⁵⁶⁾ 이것은 고고학자료에 나타난 연문

52) 今西龍, 1921, 「百衲本史記の朝鮮傳について」 『藝文』 12-3(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269~276쪽).

53) 『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 “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 闕不通”

54) 今西龍, 1935, 「朝鮮史概說」 『朝鮮史の栞』, 近澤書店, 77~83쪽.

55)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傳 第30 所引 『魏略』,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56)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40~50쪽; 조원진, 2020, 「고조선과 연나라의 전쟁과 요동」 『선사와 고대』 62, 49~50쪽.

화의 양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열수 기록을 모두 대동강으로 비정하기는 어렵다. 『山海經』은 “朝鮮은 列陽 동쪽에 있고 바다의 북쪽이며 山의 남쪽이다. 列陽은 燕에 속했다.”⁵⁷⁾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열수는 대동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 열수를 요동지역의 강으로 비정하면 燕나라가 고조선과 전쟁후 천산산맥 이서까지 진출했고 고조선은 천산산맥 이동으로 후퇴한 당시의 정황과 일치한다. 선진문헌의 열수는 고조선이 요동지역에 있을 때의 강 이름이며 한대의 열수는 고조선이 중심지를 이동한 이후 대동강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⁵⁸⁾

이마니시는 백남본 『史記』의 “眞番旁辰國”이 맞는 기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北宋本 『史記』가 나오기 전인 983년에 완성된 『太平御覽』에는 “眞番旁衆國”이라 기록되어 있어 “衆國”이 더 원본에 가까운 기록으로 보인다.⁵⁹⁾ 현재 한국학계에서는 진번군의 위치에 대해 재남설 입장에서 대체로 황해도로 보고 있다.⁶⁰⁾ 이마니시의 주장처럼 진번군을 충청도나 전라도로 비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마니시는 진국의 위치를 경상도로 이해했지만 진국이 존속했던 기원전 2세기의 한반도 중남 부지역은 세형동검문화가 발달했던 단계로 이시기 금강과 영산강유역에서 청동유물과 유적이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진국의 지리적 위치 역시 충남 · 전라도지역 일대가 유력하다.⁶¹⁾ 고조선의 영역을 축소하고 한사군의 위치를 최대한 한반도 남쪽으로 비정하려 했던 이마니시의 주장은 문헌 ·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볼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V. 결론

이마니시의 연구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한국고대사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중 신라사와 백제사는 단행본으로 따로 발간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하지만 이마니시는 일본학자

57) 『山海經』 卷12 海內北經,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58) 서영수, 1988, 앞의 논문, 47쪽.

59) 박대재, 2005, 「三韓의 기원에 대한 사료적 검토」 『한국학보』 31, 5~11쪽.

60) 이병도,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17~125쪽. 한군현의 범위는 남쪽으로 황해도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에서 발견되는 낙랑계 유물은 직접 지배가 아닌 문화 교류와 유이민 이주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조원진, 2021, 「고대 진번의 변천 연구」 『선사와 고대』 66, 156~166쪽).

61) 이현혜, 1984, 『삼한사회형성과정연구』, 일조각, 37쪽; 2022, 『마한 · 진한의 정치와 사회』, 일조각, 112~116쪽; 박대재, 2002, 「『三國志』 韓傳의 辰王에 대한 재인식」 『한국고대사연구』 26, 59~63쪽.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의 단군 연구를 발표하였고 기자 연구 역시 일본 학자 중에서 기자 문제를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의 연구는 단군의 역사적 실체와 기자 동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마니시는 기원전 3세기 한반도 북부에는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조선이 있었고, 남에는 진변, 진국, 임둔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기원전 3세기 이전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마니시는 위수의 『魏書』에 단군전승이 없었다고 보지만 『魏書』라고 불릴 수 있는 책은 위수의 『魏書』 외에 많은 문헌이 있었다. 단군의 실체에 대해 이마니시는 ‘왕검’이 신선의 호칭이고 지명인 ‘왕험’에서 따온 것이며, 해모수는 왕검선인의 본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三國遺事』의 사례처럼 본래 고조선의 도읍 명칭은 왕검성이 맞는 표기로 보인다. 단군을 해모수와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군의 아들 부루와 뒷날 동부여를 세운 해부루를 동일 인물로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마니시는 단군 전승에서 불교적 요소가 적으며 구조를 보면 字句 상에 도교적 요소가 많다고 했으나 그가 언급한 도교적 요소는 단군 전승의 원형이 아니라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마니시는 기자 동래를 부정하면서 『魏略』의 사료적 가치도 불신하였다. 그는 『魏略』이 樂浪韓氏의 僞系譜에 근거하여 기자의 자손에 대해 기록하면서 『三國志』와 裴松之의 기사가 되어 후대에 전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魏略』의 기록이 낙랑 한씨 위계보에 근거했다는 것은 막연한 추정에 지나지 않다.

이마니시는 기자가 와서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조선과 위만조선은 성격이나 강역이 다르다고 보았다. 즉 전자는 한강(옛 대수) 유역을 중심으로 한 韓種族의 나라이고 후자는 대동강(열수)을 중심으로 한 중국민족의 나라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구분과 한강에 중심지를 설정하는 견해는 오늘날 근거를 상실한 주장이다.

이마니시는 燕나라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대동강 남쪽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쟁후 고조선과 燕나라의 경계인 만변한은 요동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마니시는 진변을 충청도와 전라북도로, 진국을 경상도로 각각 비정하였다. 그러나 한국학계에서는 진변군의 위치는 황해도로 보고 있으며 진국의 위치는 충남·전라도지역 일대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마니시는 고조선의 존속시기와 영역을 축소하고 한사군의 위치를 최대한 한반도 남쪽으로 비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문헌·고고학 자료를 통해 볼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논문 투고일 : 2022.07.06.	논문 심사완료일 : 2022.08.04.	게재확정일 : 2022.08.17.
----------------------	------------------------	---------------------

■ 참고문헌 ■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世宗實錄』, 『應製詩注』
『史記』, 『三國志』, 『山海經』, 『潛夫論』, 『漢書』, 『後漢書』

2. 단행본

김성환, 2002, 『고려시대의 단군전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김호동, 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영희, 2022,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자료수집과 역사편찬』, 사회평론아카데미.
이병도,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이영화, 2003,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이현혜, 1984, 『삼한사회형성과정연구』, 일조각.
이현혜, 2022, 『마한·진한의 정치와 사회』, 일조각.
정상우, 2018,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아연.
정상우, 2022, 『만선사, 그 형성과 지속』, 사회평론아카데미.
정인보, 1946, 『朝鮮史研究』 上, 서울신문사.
최남선, 1973, 『六堂 崔南善 全集』 2(韓國史2 檀君·古朝鮮 其他), 玄岩社.
최남선(전성곤·허용호 역), 2013, 『단군론』, 경인문화사.
今西龍, 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3. 논문

김남중, 2014, 「위만의 출신 종족에 대한 再考」 『선사와 고대』 42.
김남중, 2020, 「점토대토기 문화의 확산과 고조선, 고구려, 한의 관계」 『선사와고대』 64.
김민경, 2014, 「遼寧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변천과 파급」 『한국청동기학보』 15.
김성민, 2008, 「해제 : 일제의 조선역사 왜곡정책 조선반도사의 실체와 조선사 편찬」 『친일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 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김정학, 1954, 「단군신화와 토오테미즘」 『역사학보』 7.
김한규, 1980, 「衛滿朝鮮關係 中國側史料에 대한 再檢討」 『論文集』 8.
박대재, 2001, 「『三國遺事』古朝鮮條 인용『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박대재, 2002, 「『三國志』韓傳의 辰王에 대한 재인식」 『한국고대사연구』 26.

- 박대재, 2005, 「三韓의 기원에 대한 사료적 검토」 『한국학보』 31.
- 배현준, 2019, 「비파형동검문화 성립 이후 요서지역의 토기문화 시론 -점토대토기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113.
-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 서영수, 1996, 「위만조선의 형성과정과 국가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9.
- 서영수, 2006,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국가·문화·교역』, 학연문화사.
- 선석열, 2022, 「일인 관학자들의 단군신화의 불가조작설과 그 비판」 『한일관계사연구』 76.
- 심희찬, 2013,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구축한 조선의 歷史像」 『韓國史學史學報』 28.
- 오강원, 2020, 「중국 동북 지역 점토대토기의 연대와 전개」 『영남고고학』 87.
- 오영찬, 2019, 「민족의 기원을 찾아서 -한국 상고 민족 담론의 창안-」 『한국문화연구』 37.
- 이근우, 2021,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 이만열, 2007,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한국사 연구」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 이지영, 2006, 「河伯女, 柳花를 둘러싼 고구려 건국신화의 전승 문제」 『동아시아고대학』 13.
- 장신, 2009,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 정상우, 2008,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촉탁(囑託)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68.
- 정인성, 2006, 「관아정의 낙랑유적 조사연구 재검토」 『湖南考古學報』 24.
- 정준영, 2017,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 역사』 115(2018, 『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2)』(윤해동·장신 엮음), 소명출판).
- 조원진, 2015, 「단군신화의 구조 연구 -시대별 변천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8.
- 조원진, 2020, 「고조선과 연나라의 전쟁과 요동」 『선사와 고대』 62.
- 조원진, 2021, 「고대 진변의 변천 연구」 『선사와 고대』 66.
- 조원진, 2022,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40.
- 천관우, 1952, 「旗田 巍 著 朝鮮史」 『역사학보』 1.
- 李健才, 2001, 「評〈箕子朝鮮傳說考〉」 『東北史地考略』 第三集, 吉林文史出版社.
- 江畑武, 1989, 「箕子朝鮮開国伝承の展開 -『漢書』・『魏略』・『魏志』を中心に-」 『阪南論集 人文・自然科学編』 25(1-3).
- 今西龍, 1910, 「檀君の傳説につきて」 『歴史地理 朝鮮號』, 日本歴史地理學會.
- 今西龍, 1910, 「朝鮮平壤郡大同江南の古墳」 『人類學雜誌』 25-8.

- 今西龍, 1912, 「大同江南の古墳と樂浪王氏との關係」『東洋學報』2-1.
- 今西龍, 1916, 「眞番郡考」『史林』1・1.
- 今西龍, 1921, 「百衲本史記の朝鮮傳について」『藝文』12-3.
- 今西龍, 1922, 「箕子朝鮮傳説考」『支那學』2卷 10・11號.
- 今西龍, 1929, 「檀君考」『青邱說叢』卷1(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김희선 번역, 2009, 「단군고」『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 今西龍, 1929, 「洌水考」『朝鮮支那文化の研究』, 京城帝國大學.
- 今西龍, 1935, 「朝鮮史概説」『朝鮮史の栞』, 近澤書店.
-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 朝鮮樂浪玄菟帶方考」『史學雜誌』5-4.
- 白鳥庫吉, 1910, 「箕子は朝鮮の始祖に非ず」『東京日日新聞』1910.8.31.(1970, 『白鳥庫吉 全集』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 白鳥庫吉, 1912, 「漢の朝鮮四郡疆域考」『東洋學報』2-2(1970, 『白鳥庫吉全集3: 朝鮮史研究』, 岩波書店).
- 白鳥庫吉・箭内互, 1913, 「第一篇 漢代の朝鮮」『滿洲歴史地理』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北山祥子, 2021, 「日本人の檀君研究」『한일관계사연구』74.
- 池内宏, 1948, 「眞番郡の位置について」『史學雜誌』57-2・3(1951, 『滿鮮史研究』上世編, 吉川弘文館).

ABSTRACT

Imanishi Ryu(今西龍)'s study on Old Joseon and its drawbacks

Cho, Won-Chin

The studies on the history of Korea conducted by Imanishi Ryu were generally on the ancient history of Korea. He published several study results in fields related to Old Joseon, such as Dangun and Kija. His studies require more detailed analysis in that they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ater generations of the Japanese academic world and their perception of Old Joseon.

There are deep flaws in that Imanishi denied Dangun while stating that “Wanggeom” originated from Pyeongyang’s old name of “Wangheum” or that Dangun was the same person as Hae Mo-su. As in the case of “Samgukyusa,” Wanggeom-seong associated with Dangun Wanggeom is considered the correct notation for the original name for the capital of Old Joseon. Moreover, Dangun is also a different person from Hae Mo-su. Imanishi stated that there were only a few Buddhist elements and more Taoist elements in the expressions of the Dangun transmission. However, the Taoist elements he mentioned can be seen as written that way, not in the original form of the Dangun transmission but during the process of being set in characters.

Furthermore, Imanishi’s denial of Kija’s migration does not seem very different from the views of the Korean academia. However, Imanishi did not stop at denying Kija’s migration but distrusted the historical value of Yilyag as he viewed Yu Huan’s Yilyag as records based on the fabricated genealogy of the Nakrang Han fami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deny the historical value of the Yilyag and the historicity of the kings of Old Joseon that appear in the Yilyag even if there are partly embellished sections.

Imanishi Ryu refused to acknowledge the true nature of Old Joseon before the third century BC but explained that Joseon before Wiman with the legend that Kija came to become king and the Wiman Joseon had different characters and territories. In other words, the former was considered a nation of the Korean race centered around the Han River(former Daesu), and the latter was considered a nation of the Chinese people centered around the Daedonggang(Yeolsu).

Furthermore, Imanishi inferred that Jinbeon was Chungcheong-do and Jeollabuk-do, and Jinguk was Gyeongsang-do. However, this residential composition of the Old Joseon and location inference of Jinbeon and Jinguk are baseless views today.

Imanishi's claims that attempt to scale down the duration and territory of Old Joseon and modify the location of the Four Commanderies of Han to the far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a considerable amount of problems when viewed through the literary and archaeological data.

Key words : Imanishi Reu, Dangun, Kija, Old Joseon, Dangun Joseon, Wanggeom Joseon, Kijajoseon
--